

행동 나선 통합행동 “지도체제 개편 하자”

박영선 등 지도체제 개편 통합전대 주장

‘민집모’도 토론회 제의...文 “지나간 이야기” 일축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지도체제 개편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재선임 논란이 일단락 되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류 진영이 거세게 반발, 당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비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를 비롯한 현재 지도부로는 내년 총선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도 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도 성향 중진 전·현직의원 모임인 ‘통합 행동’의 박영선 의원은 당 밖의 전정배,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의원까지 포괄하는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세

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비주류 성향의 강창일 의원은 당내 인사 참여하는 선대위를 조기에 구성한 뒤, 당 밖 인사들이 참여하는 2단계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는 일사각 당부만 수행하고 공천을 포함한 총선 업무는 선대로부터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조기 전대론을 대체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다. 민집모는 오는 12일 자체 혁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주류 진영에서는 당의 분열을 촉

발시키는 비주류의 배신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까지 열어 ▲재선임 확인 ▲대표 거취를 둘러싼 분열적 논란 배제 ▲정기국회 전담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비주류의 주장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비주류가 압박에 나서는 것은 문 대표가 지도부의 뜻을 모아 총선 관련 체제 정비할 수 있는 명분마저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통합전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나간 이야기 아닌가요”라고 넘겨받았다. 자신의 거취 논란은 재선임정국을 거치면서 해소된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류 진영의 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무색하다.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재 상

황에서 지도체제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당을 분열로 내몰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부터 지도체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작은 선출직평가위원장 인선을 계기로 주류와 비주류가 충돌, 지도체제 개편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의 신당 세력들도 국감 이후, 통합을 위한 일타회의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야권의 유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국감 이후, 부산 출마 등의 승부수를 띄우며 당내 논란 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천싸움 ‘점입가경’

與, 공천 특별기구 발족 불발

위원장·위원 인선 놓고 친박-비박 힘겨루기 팽팽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방식을 결정할 특별기구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위원 구성을 놓고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발족이 무산됐다.

한 참석자는 “특별기구를 만드는 데에만 동기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 누가 포함되느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관례상 국민공천제대스크포스 위원장이던 황선우가 당연직으로 맡아야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는 새 판을 짜고자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 현직 최고위원 중에서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황 사무총장이 친박계 이긴 하지만 국민공천제TF의 인원 구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황 사무총장

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만약 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 사무총장이 맡고, 나머지 위원들은 새로운 인물을 많이 포함하는 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전·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정문헌 이화재 의원이 일단 당연직 위원으로 거론된다. 홍 1부총장과 정문헌 의원은 비박계로, 박 2부총장과 이화재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친박계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 김태홍 의원 등이, 비박계에서는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태 박민식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 “朴대통령 탈당하고 공천 손 떼라”

“민생 해결 전념을”...與 “소가 웃을 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 선거제도 논의에서도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최근 박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은 폭발 직전”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거들하는 권력싸움이 나라의 앞날을 더 암담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대의 대통령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며 “내년 총선 공천과 미래 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력싸움에 빠져 경제와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에 대해 야당 대표가 탈당 운운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일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웃는 차, 덩덤한 金·文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광진구 세라톤 그랜드 워커히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오른쪽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구속’ 박기춘 국토위원장 사임

12일 후임 선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이 5일 국회 사무처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박 위원장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오는 12일 재판 기일이 잡혔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있어서 오늘 사임계를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위는 박 위원장이 사임계를 내지 않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국토위는 대행체제로 국감을 진행해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선출직 평가위원장 인선 연기

비주류 최고위원들 강력 반대...주류측 “7일 마무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평가를 담당할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인선이 진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를 평가위원장으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에서 비주류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대, 이날 최고위에서 논의조차 못한 것이다.

문 대표를 비롯한 주류 측은 평가위원 구성 시한이 지난달 19일이었던 점에서 더 이상 인선을 미룰 수 없다는 결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문 대표는 전날 간담회에서 “좋은 사람이 있다면 더 추천해달라”면서도 “이번 주 내에는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다음달 13일까지 평가위원의 활동 기간”이라며 “한 달 정도 평가위원 활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위원장 임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주류 일부에서는 조 교수가 패배로 귀결된 지나 2012년 총선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점과, 진노(진노무현) 성향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서 변수가 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길어질 경우, 평가위원 임명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비주류 측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삼근 목사도 (평가위원 후보로) 얘기가 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주승용 최고위원도 “(문 대표가) 좋은 사람 추천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조 교수의 카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p>
---	--	--